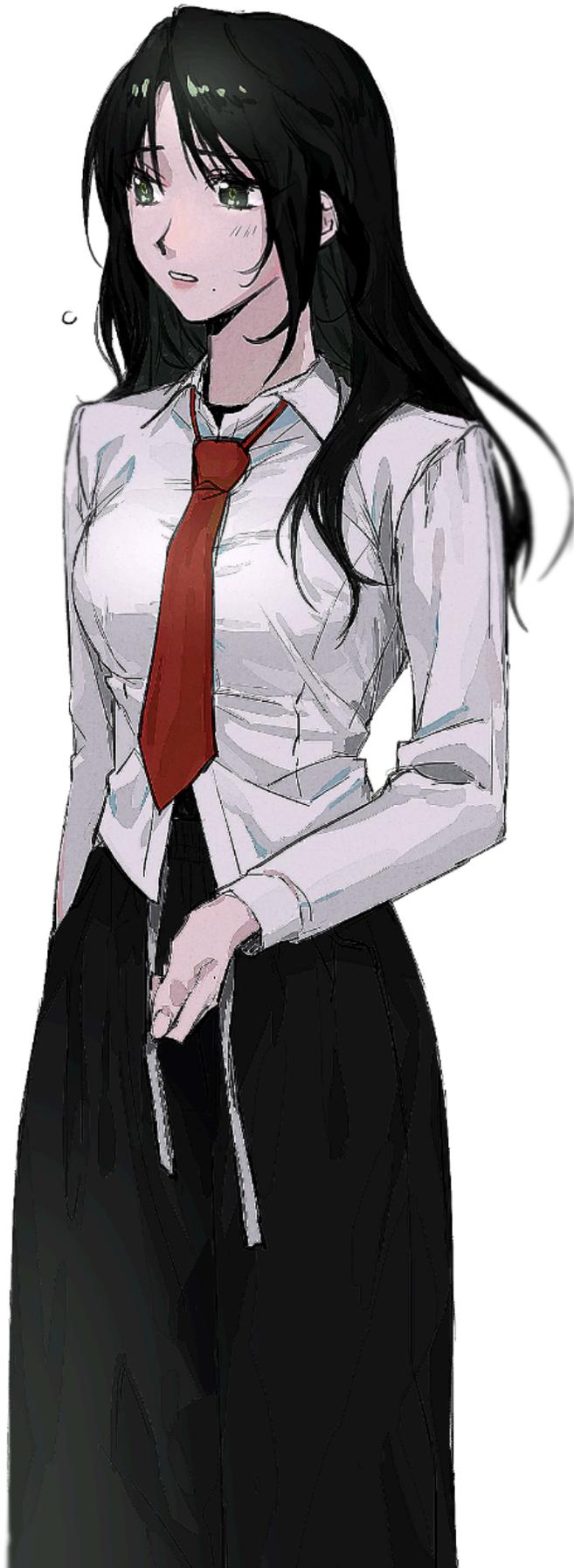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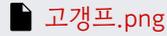


“ 반갑다고? 응... 난 별로. ”

[ 고3 **갱스터** 프로젝트 ]

[ 외관 ]



 고갱프.png

딱 보기에 착하고 순해보이는 얼굴,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보인다.

### [ 이름 ]

뇌이래

### [ 성별 ]

녀

### [ 키/몸무게 ]

167/평균

### [ 성격 ]

냉담한/인색한/개인적인

또래 친구들과 딱히 친분이 없다. 가는사람 잡지 않고 오는사람 막는다. 이유는 노코멘트. 때문에 항상 혼자 있으며, 학기초마다 외모만으로 이래를 사람을 잘 받아주는 친구로 착각해 말거는 경우가 허다하다. 이럴 때마다 본인 얼굴이 싫다고 느껴진다. '어떡해... 괜찮아?' 하는 얼굴로 "그래서 어찌라고..." 를 내뱉는다. 지금까지 이에 경악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.

과거 별명이 구두쇠였을 정도로 절약에 열심이다. 그러나 이는 아낀다라기보다는 없으니 못쓰는 것에 더 가깝다. 하지만 이래는 구두쇠를 부정하지 않았다. 거지보다는 구두쇠가 낫다고 느꼈기 때문에. 가만히 있었는데 절약왕이 된 셈이다. 그리고 구두쇠(거지)는 현재 진행형이다.

단체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. 체육 등 짝활동을 하는 과목이 있다면 항상 짝 없는 친구로 혼자 남는다. 체육 선생님 머리에도 그렇게 남겨졌을 것이다. 소풍이나 수학여행(그럼에도 이런 활동은 꼬박꼬박 참가한다.)을 가셔도 자꾸 개인행동을 저질러 꾸중을 듣기 일수.

## [ 기타 ]

inTp

추구미: 한마리의고독한늑대

외동, 집이 부유하진 못하다. 부모님 금슬은 좋으신 편.

2학년때 물리공학동아리에 들었다가 3학년까지 이어오고있다. 진로 방향이 물리공학은 아니지만 다른 동아리를 찾고 면접보는게 더 번거로웠다.

못하는 과목은 영어, 불호과목도 영어다. 제일 이해가지 않는 사람이 영어 좋아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다.

취미 중 하나로는 아이쇼핑, 인터넷 쇼핑물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담아놓은 장바구니가 벌써 39205829개...

가끔 절제력을 잃고 쓸데없는 물건 한두개 장만하기도 한다.

중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완전히 놓고 살았으나 갑작스런 공부내림을 받고 정진하기 시작했다. 그러나 큰 야망은 없다.

성적에 맞춰 진학하기를 생각했지만 조금만 더 해보자는 주변인들의 말에 생각보다 열심히 살고있다.

## [ 선택과목 ]

언매 미적 물1 지1

## [ 지난 모의고사 ]

국어 4

수학 4

영어 5

물1 3

화1 5

[ 선관 ]